

# MICHAEL HENCHARD의 性格的 悲劇

趙 進 來

## I

文學作品的 構成에 대한 見解와 論議, 또한 主張이 한 사람의 定義로 確立되기도 어렵거나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周知의 常識的 事實이지만 小説은 文學의 한 分派요, 文學은 藝術의 한 支流며, 藝術은 人間生活의 한 部分이다. 人間生活이 發展的 形態를 指向해야하기 때문에 藝術自體는 더 말할 必要도 없고 文學도 역시 人智發達에 따라 새로운 生成과 流動, 變遷의 過程이 있어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創造的 發展을 바탕에 깔아야 한다. 따라서 歷史的 考察과 普遍的 妥當性에 根據하여 한 作家나 하나의 小説作品을 分析하고 評價하여 藝術的 純粹性과 文學的 當爲性을 밝혀봄으로써 그 價値를 測定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886年 5월에 2卷으로 初版이 發刊된 Thomas Hardy의 小説 *The Mayor of Casterbridge*를 다루어 主人公의 性格에서 부터 나오는 內面의 葛藤과 外面의 行動을 통해 悲劇的 終止符를 찍는 意味와 그 悲劇을 効果있게 꾸리기 위한 作品의 雰圍氣 및 짜임새를 살피고자 한다.

Hardy는 이 小説에 *The Life and Death of a Man of Character*라는 副題를 붙였으며 1878年 4월의 日記에서 “플롯 다시 말해서 悲劇이라는 것은 熱情, 偏見, 野望에서 發生된 災殃을 막으려고 努力치 않는 人物들로 말미암아 凡人의 그것들이 점차로 蓄積어드는 狀況에서부터 생겨나와야 한다.”<sup>1)</sup>라고 記錄한 內容이나, 1888年 10월의 日記에서 “어떤 웃음거리의 表層內部를 들여다보면 悲劇을 理解하게되는 反面에 悲劇의 보다 깊은 內面을 理解하지 못하면 우스개짓만 보게된다”<sup>2)</sup>고 밝힌점과 *The Mayor of Casterbridge* 執筆이 끝난 이틀 후인 1885年 4月 19日의 日記에서 “小説家와 詩人의 本分은 가장 崇高한 것 아래에 깃든 가장 가엽게 느껴지는 것과 가장 가련한 것 밑에 깔린 崇高함을 드러내는 것”<sup>3)</sup>이라고言及한 Hardy의 悲劇觀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小説의 全盛時代인 19世紀에 出版事情에 따라 먼저 定期刊行物에 한창 또는 몇 章씩 실개됨으로써 해서 讀者들의 想像力을 키우게 되고 長篇小説의 發展을 가져오는 契機가 되기도 했으나 作家는 小説의 連載에 興味를 돋우기 위해 흔히 通俗的 樣式과 暗合的 事件配分과 이야기 줄거리에 危機意識을 助長하여 간혹 淺薄한 感傷的 趣向을 念頭に 두어야 했던 점에서 Hardy도 當時의 다른 一部 作家들과 마찬가지로 月刊誌에 이미 여러편의 作品을 連載했었으면서도 *The Mayor of Casterbridge*를 週刊紙에 連載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다음과 같은

1) Florence Emily Hardy (1962), *The Life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p.120.

2) Ibid, p.215.

3) Ibid, p.171.

心情吐露는 作家로서의 文學的意圖가 상당히 損傷될 것을 念慮했음을 짐작케 해준다.

1886—2 January, *The Mayor of Casterbridge* begins to-day in the Graphic newspaper and Harper's Weekly—I fear it will not be so good as I meant, but after all, it is not improbabilities of incident but improbabilities of character that matter.<sup>4)</sup>

精神的 安易性이 無感覺과 惰性的 習慣이 지니는 本領이라면 苦惱는 特히 現實認識에 대한 강한 意識作用의 發露라고 볼 때 Hardy의 그러한 心情은 性格의 問題를 내세운 悲劇作品으로서 多少 缺陷을 드러내지만 全體의으로는 그의 다른 小說들과는 다른 角度에서 무계를 지니는 作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主人公의 性格上 缺陷과 運命의 災難이 結合된 結果로 부터 그가 겪게되는 沒落過程은 가히 古典 希臘 悲劇에 比肩된다.<sup>5)</sup> 이점에 있어선 R. Carpenter가 *The Mayor of Casterbridge*를 *The Return of the Native*의 作風에서 脫皮한 項目中에서도 으뜸으로 꼽는 內容으로는 眞正한 意味의 希臘 悲劇이 지니는 嚴肅性과 必然性을 갖추고 있다는 事實로서 “性格的 缺陷이 自己抹殺의 破滅로 終局되는 한 사람의 뚜렷한 主人公을 내세웠다”<sup>6)</sup>고 言及한 內容과 一致하고 있다.

Hardy의 이 作品이 古典的 悲劇作品의 線에 連結되는 까닭은 人間이란 薄命일 수도 있고 두려운 存在일 수도 있지만 결코 微賤한 存在는 아니며 그 運命 또한 悽慘한 것이거나 神秘의 對象일 수도 있겠으나 滅視의 存在는 아니라는 見地에서 Henchard의 人物이 設定되고 있다는 點이다. 悲劇의 題材가 되는 境遇란 두드러지게 훌륭하거나 正義에 있어서 越等한 人物은 되지 못하나 그의 不幸이 惡이나 非行때문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判斷에서 緣由될 때 그가 누리던 名聲과 幸福이 큰 不幸에 빠져드는 結果的 事實에 있다는 점이며<sup>7)</sup> 性格의 플롯에서 플롯 構成原理란 行動에 의하여 促進 또는 形成되는 主人公의 道德의 性格의 完成된 變化過程인데 이 과정은 行動, 思想, 感情속에서 分明히 나타난다는 점<sup>8)</sup>을 들 수 있다. 나아가서 悲劇的 感動의 要點은 內的苦惱에 있으므로 葛藤으로서의 悲劇은 行爲가 事件進行의 中心이 되어야 하고 行爲가 곧 性格의 表現일 수 밖에 없는 關係로 말미암아 完全을 指向키 위하여 煩悶하는 世界이면서도 榮光이 있는 善과 함께 惡도 創出되기 마련이고 또 이 惡을 克服하기 위하여 自身の 損失과 破滅을 당해야 겨우 成就시킬 수 있다는 狀況 그 自體가 된다는 점에서 悲劇의 解釋을 뚜렷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면 悲劇의 苦難은 主로 人間의 行爲에서 始作되고 發展되어야 하며 그 中心은 性格으로부터 發動되는 行爲에 있거나, 行爲에 나타나는 性格에 있거나 간에 兩者가 모두 眞面目을 지니게 된다. 結局 悲劇의 世界는 性格과 行爲의 世界인데 이 世界속에서는 苦痛의 神秘性이 缺如되면 悲劇이 될 수가 없는 까닭으로<sup>9)</sup> Henchard가 겪는 人生의 날과 씨의 무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行動과 性格을 담고 있는 作品의 全般的 氛圍氣와 짜임새에 먼저 一瞥하는 것이 順序일 듯하다.

4) Ibid, p.176.

5) Abraham Lass (1966), ed. *Guide to 50 British Novel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p.176.

6) Richard Carpenter (1964), *Thomas Hardy* (Boston: Twayne Publishers, Inc.), p.102.

7) I. Bywater (1958), rev. and ed. *Aristotelis: De Arte Poetica* (London: Oxford), Chapter 13.

8) R. S. Crane (1968), 'The Concept of Plot and the Plot of Tom Jones' in *Critics and Criticism, Ancient and Modern* ed. R. S. Cran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621.

9) A.C. Bradley (1966),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p.38.

## II

(1) 45個章으로 짜인 이作品은 全體的으로 23年の 歲月에 걸쳐있으나 第一 및 第二章에서 第三章으로 접어들면서 18年の 時間을 뛰어넘기 때문에 實際로 事件이 展開되는데 割當된 時間은 5年에 不過하다. 그러나 作品 初頭의 時間에 대한 Hardy의 配慮는 多분히 意圖의이며 異色の이다. 그의 다른 두篇의 長篇小說 첫場面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의 幕이 내리기 始作하는 時刻으로 부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A Saturday afternoon in November* was approaching the time of twilight and the vast tract of unenclosed wild known as Egdon Heath embrowned itself moment by moment. Overhead the hollow stretch of whitish cloud shuttering out the sky was as a tent which had the whole heath for its floor.<sup>10</sup>[my italics]

*On an evening in the latter of May* a middle-aged man was walking homeward from Shaston to the village of Marlott,.....<sup>11</sup> [my italics]

*One evening of late summer*, before the present century had reached its thirtieth year, a young man and woman, the latter carrying a child, were approaching the village of Weydon-Priors, in upper Wessex,.....on foot. <sup>12</sup>(p.3) [my italics]

이와 같이 하루가 끝나는 時刻에 첫 文章을 이끌어냄으로써 해서 이야기의 全般的 內容과 結末에 대한 暗示的 配慮를 하려는 作者의 意圖를 짐작할 수 있다. 事件의 展開에 따른 단계의 큰 轉換點이 있을 境遇엔 으레히 거의 같은 時刻인 黃昏녘을 택하는데 이 時刻이 季節에 聯關되면 늦은 봄, 늦여름이나 가을이 된다. 한 季節이 끝나고 있거나 한 해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간이 되는 것이다.

18年만에 Henchard를 찾아오는 Susan과 Elizabeth-Jane의 境遇는 9월도 中旬에 가까운 金曜日 저녁이며(p.36), Farfrae를 解雇한 다음 Elizabeth-Jane의 多情多感한 面에 대해서 까지도 激情的인 本性을 드러내어 그녀를 自身으로 부터 疏遠해지게 하는 일은 10월이고(p.168), Henchard와 Farfrae간의 짐마차 事件에 대한 Lucetta의 介入에 激奮하고 그녀와의 關係에서 狼狽를 당하며 물러서는 때는 9월이며(p.251), 21年間의 禁酒盟誓가 끝나는 날짜를 손꼽아 헤아리며 술을 다시 마실 수 있다는 自暴自棄的인 心事吐露와 얼던 抱負에 부풀어 더욱 더 내리막의 生活에 젖어드는 때가 겨울이며(p.297), 地上 40피트나 되는 창고에서 Farfrae를 죽이려고 했던 일(p.354)과 마을사람들의 skimmity-ride로 인해 Lucetta가 流産을 하고(p.361), Henchard自身은 復合的 事件에서 解放되고픈 激情的 苦惱로 말미암아 自殺하려고 江가에 나간 時間이 黃昏녘의 일 (p.384)이고, 모든 希望과 意慾을 잃고 23年만에 다시 Weydon-Priors를 찾고 荒野를 헤메다가 臨終을 하는 때도 가을(pp.410~430)이다.

반면에 저녁이나 밤, 그리고 늦은 季節이나 가을, 겨울 이외의 時刻과 季節에 事件展開가 없는 것은 아니나 內容上의 比重은 輕중 바가 못된다. 다시 말하면, 이는 小說에서 劇의 效果를 얻기 위해 試圖하는 技法의 一種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黃昏이 지니는 象徴的 意味와 暗喻<sup>13</sup>는 Hardy 特有의 悲劇小說 構成에 관한 霧圍氣 造成의 效果다. 한편, 小說의

10) Thomas Hardy (1923), *The Return of the Native* (New York: Random House, Inc.) p.3.

11) \_\_\_\_\_ (1951), *Tess of the d'Urbervilles* (New York: Random House, Inc.), p.3.

12) \_\_\_\_\_ (1950), *The Mayor of Casterbridge* (New York: Random House, Inc.)—앞으로 이 作品에서 引用하는 句文은 그 끝에 페이지를 표시함.

13) Perry Meisel (1972), *Thomas Hardy: The Return of the Repressed*(New Haven: Yale Uni-

첫場面이 펼쳐질 때 觀覽者가 映畫館에서 舞臺위의 畫面에 視線을 쏟듯이 책장에 눈길을 주고 있으면 話者(作家)가 잇단 場面들에 漸次的인 이야기를 보태어 나가는 映畫演出技法의 一種에 比喻하는 見解<sup>14)</sup>도 있으나 時間과 時間性이 뜻하는 象徴的 內面性의 特質을 說明하기엔 조금 無理스럽다고 보겠다.

(2) 플롯이란 말이 文學的 用語이고 一般的 意味로 使用, 適用될 수 있는 明確한 用語로서 批評家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 가운데서 一聯의 事件(the chain of events)과 이야기를 꾸며주는 原理를 指稱하는 뜻으로 使用된다면<sup>15)</sup> 45章으로 이뤄진 *The Mayor of Casterbridge*는 다분히 悲劇的 플롯을 지녀서 起承轉結의 要件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始發點이 되는 第一章에서 부터 Lucetta와 Farfrae가 Port-Bredy에서 結婚을 하고 Elizabeth-Jane이 Lucetta 집을 나와 Henchard집 건너편으로 移徙를 하는 第三十章까지를 事件의 導入과 發展을 위한 準備 段階로 보고(起), the furmity-woman이 法廷에서 Henchard의 아내 賣買의 過去를 暴露하여 急轉直下로 떨어져내리는 그의 社會的, 精神의 瓦解로 始作되는 第三一章부터 skimmity-ride의 衝擊때문에 Lucetta가 流産으로 死亡하고 道德的 良心으로 돌아서는 Henchard가 Elizabeth-Jane을 親子息으로 맞아들여 살겠다는 第四十章까지가 이야기를 頂點으로 끌어올리는 過程이라면(承), 죽었다고 알려진 Newson이 Elizabeth-Jane을 찾아 Casterbridge에 나타났을 때 그녀가 죽어 어머니곁에 묻혔다고 거짓말하는 第四一章부터 다시 乾草다발을 묶는 일꾼이 되어 Casterbridge를 떠나는 第四三章까지는 이야기의 終末을 豫告하고(轉), Henchard가 돌이켜보는 自身の 過去에 대한 虛無感과 罪責感에 얽매어 앞날에의 希望조차 갖지 못하는 第四四章부터 肉體의 衰殘보다는 精神的 破滅과 荒涼感의 수렁에 빠져 荒野를 彷徨하다 죽는 第四五章에서 이야기가 끝맺음(結)되고 있다.

비록 D. Kramer는

.....though *The Mayor of Casterbridge* is modeled to a large degree on Aristotle.....he does not adhere consistently to Aristotle's ideas on tragedy or those of any clearly defined school.<sup>16)</sup>

이라고 했지만, 이는 Aristotle의 教科書의 規範의 問題에 立脚한데서 비롯된 意見이고, 主人公의 性格에서 부터 連結되는 行跡과 生活의 軌道를 徹底히 追求해 나가며 反復되는 性格上의 缺陷과 그에 隨伴되는 過誤의 되풀이, 그리고 특히 第四四章의 境遇에 이르러서 Kramer는 "the idea of cycle"<sup>17)</sup>의 理論으로 作品全體의 構成을 說明하면서 複雜한 內容에도 不拘하고 一貫性이 있고 有機的 構成이라고 言反하고 있다.<sup>18)</sup> Hardy는 人間의 生活이, 나아가서는 人間事가 平面위의 直線이 아니고 한 매듭이 풀리기 전에 또 한 가닥이 겹치기도 하고 세 울이 얽힌 가운데서 한 가닥이 풀려나올 수 있는가 하면 전혀 실마리가 解決되지도 못할 可能性을 內包하는 複合的 構成體임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바탕에서 짜인 作品을 다음과 같이 簡略하게 整理할 수 있다.

versity Press), p.125.

14) David Cecil (1972), *Hardy: The Novelist* (New York: Manaroneck), p.82.

15) Edwin Muir (1972), *The Structure of the Novel*,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p.16.

16) Dale Kramer (1975), *Thomas Hardy: The Forms of Tragedy* (London: Macmillan), p.14.

17) Ibid, p.22.

18) Ibid, p.11.

Chapters	General literary term	Aristotle's dictum
1~ 3	Introduction	} the beginning
4~30	Generating circumstance	
31~40	Complication and crisis	the middle
41~43	Catastrophe	} the end
44~45	Denouement	

여기서 主人公의 悲劇的 이야기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作品構成을 古典的悲劇의 플롯에 一致시키고 있는 점을 헤아릴 수 있고 悲劇小說로서의 무게를 크게 느낄 수 있다.

(3) 大部分의 Hardy 作品이 男女間의 사랑을 素材로 다루면서 歲月의 흐름에 발맞춰 그 사람이 起死回生 내지는 中途轉落이나 結實이 없는 狀況에서 끝나는 이야기들이지만 *The Mayor of Casterbridge*는 플롯을 連結시키는 單純한 男女關係에 지나지 않는 사랑이 取扱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Henchard를 求心點으로 하여 그의 週邊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女人들은—Susan, Elizabeth-Jane, Lucetta, the furmity-woman, 그리고 『마을아낙네들』— 사랑을 위해 存在하는게 아니라 作品構成上 登場하고 있을 뿐이다. Farfrae와 Lucetta, 또 Elizabeth-Jane과 Farfrae의 結婚도 마찬가지다. Henchard와 Farfrae는 行動하며 그行動의 目的을 達成하려는 過程이나, 끝내 成就해내는 데서 存在하고 있는 반면에 女人들은 그들이 벌이는 行動의 울타리안에서 安住하는 滿足感<sup>19)</sup>에서나 存在價値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女人들의 性格은 Eustacia, Tess, Arabella, Sue와는 類型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慘憺한 生活을 벗어나거나 克復해보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自身에게 부딪쳐오는 現實에 盲徒하다 싶고 高분스럽기만한 甞기 없는 Susan인가 하면,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항시 애쓰면서 內面의 知識을 채워 제대로 받지 못한 教育을 補完해서 조용한 아내요, 『어머니가 되고자 努力하는 良順하고 受動的인 立場에서 行動하는 Elizabeth-Jane이고, 妖艷하면서 다소 作爲의 性格을 지닌 채 現實에 打算이 팔라 處身에 밝은 Lucetta인 것이다. 이러한 性格의 女人들이라서 Henchard의 性格과 行動을 이끌어내는 素材 提供의 役割이나 해내지 獨自의인 性格의 人物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作家 Hardy가 主人公에게 強한 照明을 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事件展開 및 氛圍氣 造成이 必要할 때나 이야기 構成上 必須不可缺한 要素가 되지 못하는 部分을 飛躍시키는 때에 登場하는 마을 사람들이(rural chorus)<sup>20)</sup> 있는데 다른 Wessex 小說에서 갖는 比重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다루는 角度도 다르다. 勿論 作品의 背景이 시골이 아니라 都會地라는 設定도 考慮해야 하지만 全體的인 迫進感을 주고 緊張感을 造成하기 위해서 “.....했다더라”나 “.....할 것 같아”라 든지 “.....라고 들었어”의 表現을 止揚하려는 것이다. 반면에 Jopp과 Abel을 Henchard와 직접 부딪치게 하므로써 rural chorus에서 期待하는 이상의 效果를 얻고 있다. 이점은 S. Chew의 짧은 說明에서 Hardy의 意中이 分明해진다.

In-keeper, town constables, servants, laborers, and rustics are lineal descendants of Shakespeare's similar types, combining humor, shrewdness, simplicity, and pathos. They are not portrayed at full length or in the round but are what E.M. Forster has called "single dimensional" characters. A-

19) D. H. Lawrence (1964), *Selected Literary Criticism*, ed. Anthony Beal (London: Mercury Books), p.191.

20) Carpenter, p.102.

mong such are Solomon Longways, Christopher Coney.....<sup>21)</sup>

이상 三個 項目으로 나누어 살펴본 內容은 Hardy가 그의 餘他 作品들과는 다른 차임새로 또 悲劇의 效果를 倍加시키기 위한 周到綿密한 計算아래서 *The Mayor of Casterbridge*를 完成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인데 이는 오직 主人公 Henchard의 內面的 性格만으로 한 개의 悲劇을 꾸려내려는 뜻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무엇을 題材로 하느냐가 問題가 아니고 題材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重要함을 드러내게 있다고 할 것이다.

### III

乾草다발을 매는 老鍊한 일꾼인 Henchard는 아내와 젓먹이 딸을 데리고 일거리를 찾아 Weydon-Priors로 오지만 그가 처음 듣게 되는 그곳은 豫想과는 너무도 距離가 멀기만 했다. 希望과 抱負는 一時에 挫折과 失望의 敗北感으로 바뀌고 furmity 과는 天幕에서 마시는 술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놓게 된다. 한잔 술에 泰然自若해지더니 두잔째엔 愉快한 氣分이 되고 세잔 술에 수다스럽게 曰可曰否 지껄여대고 넉잔째엔 가끔 입을 앙당거려 물기도 하고 검은 눈동자의 炯炯한 빛을 발하는 傲慢한 얼굴 表情으로 바뀌며 是非라도 벌일 듯한 사람이 되는데 마침 天幕밖에서 들려오는 말(馬)을 競賣하는 외침에 아내를 팔아치워 보려는 엉뚱한 聯想作用을 일으킨다. 自身은 18歲에 結婚했지만 妻子가 없어짐으로 해서 다시 自由로운 사람이 되고 따라서 貧困에서 脫皮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想像의 날개를 퍼득이며 天幕 안에서 소리친다.

"Hey? Why? begad, I'd sell mine this minute if anybody would buy her!" (p.11)

結局 5 guineas에 값이 매겨지고 結婚가락지를 뽑아 男便의 面相에 내던지며 그의 아내는 어린애를 안은채 船員인 Newson을 따라 나갈 때 그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데, Hardy는 小說의 序文에서 아내 競賣에 관해 미리 言及하여 作品에서 그 事件이 지나는 重要性和 아울러 競賣 自體에 대한 信憑性을 높이고 있다.

The incidents narrated arise mainly out of three events,.....in the real history of the town called Casterbridge and the neighboring country. *They were the sale of a wife by her husband,.....* [my italics]

醉中이라는 狀況아래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이 엄청난 事件은 野心을 위해선 妻子를 버리는 罪人(sinner)의 立場으로 몰아치고 「아내를 팔아 치운 놈」으로서의 現實은 赦될 수 없는 罪惡과 自責感에 빠져들게 하여, 이 限界와 範疇를 벗어날 수 있는 辯明이 容納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道德律의 違反은 그의 全生涯를 통해서 마치 부메랑처럼 모든 事件들이 그에게 苛酷한 망치질을 해댄다.<sup>22)</sup> 이 망치질이 前述한 바와 같이 構成上으로 보는 the idea of cycle이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天幕바닥에 떨어져 있는 Susan의 가락지가 간밤의 일을 되새겨 일깨워주고 그는 後悔하지만 妻子와 Newson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다. 바로 이 점이 그의 性格 그것이다. 鬱憤과 激情的인 感情에서 일을 저지르고 곧 돌아서며 後悔하며 일을 바

21) S.C. Chew (1950), Introduction to *The Mayor of Casterbridge* (New York: Random House, Inc.), p. x.

22) Jean Brooks (1971), *Thomas Hardy* (London: Eleck Books Ltd.), p.199.

로 잡아보려하는 데서 그의 性格上의 缺陷이 露出되고 破局的 終末로 엮혀들게 되는 것이다. 그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問題點은 物神崇拜의 迷信性이 強하다는 것이다. 애타게 妻子를 찾아다니다가 禁酒盟誓을 하는데도 꼭 教會를 찾아가는 境遇와 穀物收穫期의 날씨를 남몰래 점치러 가기 위해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 밤에 Mr. Wide-Oh를 찾는 일이 그예가 된다.

But first he resolved to register an oath, a greater oath than he had ever sworn before: and to do it properly he required a fit place and imagery; for there was something *fetichistic* in this man's beliefs. (p.23) [my italics]

But before acting he wished—what so many have wished—that he could know for certain what was at present only strong probability. He was *superstitious*—as such *headstrong* natures often are——……(p.239)[my italics]

激情的인 만큼 後悔가 빠르며 그後悔를 痛感하기 때문에 迷信의 性向을 드러내게 되고 맨손으로 他鄉에서 돈을 뚫고 立身하게 된 自手成家의 Henchard인 만큼은 고집스럽기도 하다.

第三章으로 이야기가 옮겨지면서 18年の 歲月이 흐르고 처음 Weydon-Priors에 나타나던 Henchard의 容貌은 (The man was of fine figure, swarthy, and stern in aspect; and he showed in profile a facial angle so slightly inclined as to be almost perpendicular. <p.3>) 이제 Susan의 눈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matured in shape, stiffened in line, exaggerated in traits; disciplined, thought-marked—in a word, older. (p.43)

그의 身分은 繁盛하는 糧穀商으로서 또 Casterbridge 市長으로서 堂堂한 社會的 名士가 되어 있다. 필시 술이나 마시며 延命하다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Susan에게 意外의 現實이 되고 있지만(to his wife's surprise, the two for wine were *empty*, while the third, a tumbler, was *half full of water*. <p.44> [my italics]), 이는 오직 타고난 精力의인 體質과 禁酒盟誓을 實踐하고 있는 Henchard의 外形的 變化 德澤인 뿐이다. 精神의 成長과 內面的 知性, 그리고 道德的 기틀이 不足한 人間의 肉體的 成長이란 沙上樓閣의 허우대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立身出世의 世俗의 成功이 招來할 悲運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이다. The King's Arms에서 나누고 있는 對話에서 이점을 살피볼 수 있다.

"Hey! How about the bad bread, Mr. Mayor?"……

"……You rather ought to tell the story o' that, sir."

"Well, I admit that the wheat turned out badly," he said, "But I was taken in in buying it as much as the bakers who bought it o' me." (p.48)

한 걸음 더 나가서 Susan이 Elizabeth-Jane을 시켜서 面會를 請했을 때 便紙로 回答하면서 5 guineas를 同封함으로써 18年前에 팔았던 아내를 다시 사들인다는 意思表示를 하는데, 이점 역시 世俗의 野望에 젖은 內面없는 俗物로서의 贖罪 表現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心情을 獨白하지 않을 수 없는 Henchard이다.

"Begad!" he suddenly exclaimed, jumping up. "I didn't think of that. Perhaps these are imports

—and Susan and the child dead after all!”……“It never rains but it pours!” (p.89)

忘却의 歲月과 冷嚴한 現實에서 容納될 수 없는 自身の 過去가 되살아 난다고 하여 이를 否定해보려는 그의 性格의 한 斷面이 다시 露出되고 있다.

反面에, Elizabeth-Jane에겐 옛일을 감춰두고 Susan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한 남자로서, 市長으로서 그리고 敎區委員으로서 베풀 수 있는 親切과 寬容을 모두 베풀어서 아내에 대한 贖罪의 姿勢를 堅持하는 그에게 그 狀態 그대로 餘生을 마칠 수 있는 幸福한 家長이요 無難히 市政을 살피고 事業을 維持해 나가는 生活이 營爲되며 Abel의 老母에게 親切을 베풀듯이 他人들과의 對人關係를 지켜 나가는 等等의 일에서 凡俗한대로 한 人間으로서의 너그러운 性格도 내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그의 人間味를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Farfrae에 대한 率直性과 다소 무뚝뚝하지만 그에게 애써 베푸는 親切, Lucetta에 대한 包容의 態度, 破産되어 빚 整理할 때 銅錢 한푼까지 털어 내주며 가난한 債權者에게 돌려받은 時計를 팔아서 빚을 갚는 일, Elizabeth-Jane을 親子息으로 받아들여려고 하는 마음등을 列擧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을 R. Schweik는 Henchard가 외로움을 떨치고 人間으로서 眞正한 人間關係를 追求하는 境遇로 說明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Farfrae가 外地로 부터 Henchard처럼 Casterbridge에 흘러들어오고, Lucetta가 叔母의 많은 遺産을 相續받아 모습을 나타내며, 아내 Susan이 죽고 Elizabeth-Jane이 Lucetta의 집으로 居處를 옮겨 나가고 Abel과 Jopp의 事件이 잇달아 겹쳐오는데서 한껏 잠잠히 安定되던 Henchard의 沈着과 寬容은 깨어지고 激情的이며 頑固하고 憤怒와 自負心에 찬 非妥協의인 性格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그 性格이 곧 行動으로 옮겨지는데 問題가 있다. 누구도 그를 故意로 해치려하거나 헤어지지 못할 구렁텅이로 밀어넣지도 않지만 스스로 墓穴을 파고 들어선다는 點에 意味가 있다.

Henchard is pitted, not against another man, but against something outside himself which is opposed to men of his ambition and power. No human being wishes him ill. Even Farfrae and Newson and Elizabeth-Jane whom he has wronged all come to pity him, and even to admire his strength of character.<sup>24)</sup>

Henchard가 外部狀況에 대하여 드러내는 態度와 그結果는 生存을 위한 內面鬭爭의 跋現인 까닭에 한 生命으로서의 個體의 特性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P. Meisel의 主張<sup>25)</sup>이 妥當性を 지니며 이에 대한 밑받침으로 Hardy가 Darwinism의 影響을 '크게 받았음을 指摘하는 意見도 있다.<sup>26)</sup> 이와 같은 說明은 Henchard의 人生行路가 定命論的 設定이 아니라, 밖의 事件과 刺戟에 內面的 性格으로 맞서서 스스로의 運命을 꾸린다는 事實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經過를 거쳐 나타나는 特性은 곧 個性이요, 그것은 바로 性格이며, 이 性格이야말로 그 個體의 運命이라고 Hardy는 力說한다.

23. Robert C. Schweik (1966), 'Character and Fate in The Mayor of Casterbridge,' ed. R.P. Draper, *Hardy: The Tragic Novels* (London: Macmillan), p.135

24) Virginia Woolf (1928), *The Novels of Thomas Hardy*, ed. R.P. Draper, *Hardy: The Tragic Novels* (London: Macmillan), p.77.

25) P. Meisel, p.17.

26) Vernon Hall, Jr. (1963), *A Short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131.



But most probably luck had little to do with it. *Character is Fate*, said Novalis. (p.148) [my italics]

이름부터 暗示的인 Farfrae는 (the free man who has come from afar.<sup>27)</sup>) 主人公 Henchard의 性格의 缺陷을 決定的으로 露出시키는 役割을 하게 되는데, 이들 두 사람의 氣質을 Hardy는 다음처럼 對比시키고 있다.

.....Northern insight matched against Southern doggedness—the dirk against the cudgel—and Henchard’s weapon was one which, if it did not deal ruin at the first or second stroke, left him afterwards well-nigh at his antagonist’s mercy. (p.149)

그리고 Abel에게 苛酷스러운 罰을 내린 Henchard와는 正反對로 收拾하는 Farfrae를 描寫함으로써 두 사람이 融和될 수 없는 性格의 所有者들임을 밝히기도 한다. 따라서 安定된 生活環境을 지키기 어려운 Henchard의 立場을 豫測할 수 있다. 좀더 具體的으로 이들 兩人이 展開시키는 事件과 狀況을 類似項目으로 추려서 묶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두 사람이 모두 季節에 따라 一年農事를 짓고 平凡하면서도 平和롭게 살아가는 Casterbridge 사람들 틈바구니에 떠돌이 身勢로 飄然히 흘러들었다. Henchard는 妻子찾기를 拋棄한 홀몸이고 Farfrae는 돈벌기 위해 바다 건너 新天地를 찾아가는 途中에 잠시 지나가는 홀몸이다. 둘째는 彼中間에 내세울만한 過去가 없다. Henchard는 醉中에 妻子를 팔아 치운 羞恥心과 良心의 괴로움에 시달리며 苦行의 贖罪的 生活을 하기 때문이고 Farfrae는 애뜻이 사랑하는 故鄉을 버리고 致富하자는 一念으로 떠돌기 때문에 [지난 날을 덮어 두려고 한다. 세계로, 兩人이 住民들과 同化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住民들 가운데는 이들 두 사람과 友情을 나누고 사는 親舊가 없다.

이러한 狀況은 前述한 두 사람의 氣質에 相乘作的을 하여 Farfrae는 더욱 차분하게 되고 Henchard는 目的意識에만 充實한 我執의 性格으로 굳어져 간다.

이처럼 相互間의 立場은 비슷하나 判異한 性格의 두 사람이 事業上 同僚關係를 이루다가 終局엔 敵對者가 되는 點에서 單純하고 愚直스러운 Henchard의 一面을 보게 된다. 주먹 구구식 運營을 脫皮하고 科學的이며 頭腦를 活用하는 體系的인 段階로 事業을 擴張하고 끌어 올리기 위해서 굳이 新天地로 떠나겠다는 Farfrae를 說得하여 붙들어둘 때 Henchard는 直線的, 平面的인 素朴한 凡人 가운데서도 凡人이다. 더구나 自身の 過去를 낱낱이 들려주며 그를 자기 가슴 속으로 너무 깊게 끌어 들이며 “Farfrae, between you and me, as man and man” (p.102)이라고 前提하고 앞날의 情分과 同業者로서의 結束을 다지는데, 이만큼 마음을 열어 엮는 勞作도 一瞬間 感情爆發로 霧散되고 한 가닥씩 풀려 끊어지면서 자꾸만 窮地로 물고가는 事件이 있을 때 마다 그는 自己의 지난 날을 너무 깊게 알고 있는 Farfrae에 대한 疑懼와 嫌惡가 깊어지고 憎惡心으로 번지는가 하면 殺害計劃을 꾸밀만큼 沒落의 入口를 향해 즐달음질 친다. Abel Whittle 事件을 벌이는 主人으로서 Henchard와 管理人 資格으로 Henchard에게 面數를 주며 이를 收拾하는 Farfrae 사이에 틈이 생기고 마을 사람들과 동네 어린애들을 통해서 듣게 된 Farfrae에 관한 讚辭에 기쁨이 부어진 Henchard의 愚直한 激情은 터져버린다. 당장 Farfrae를 解任한다.

“No,” said Henchard gloomily. “He wasn’t be that, because he’s shortly going to leave me.” He looked towards Donald, who had again came near. “Mr. Farfrae’s time as my manager is drawing

27) S.C. Chew, p. xviii.

to a close— isn't it, Farfrae?" (p.140) [my italics]

一時的 氣分에 움직여 解任시켰으면 그 다음에 對策을 마련하고 不利하게 돌아가는 事態를 豫見하는 判斷力이 있거나 改善方案을 講究하는 深思熟考의 思考力을 發動시켜야 할 일이나 Henchard는 당장 저지른 일을 아쉬워하며 後悔感에 빠져든다. 그 저질러진 일에서 부터 派生되는 結果엔 또다시 自己 天性 그대로 부딪쳐 나가는 圓狀의 되풀이만 있게 되어 周期的으로 缺陷이 나타나서 자꾸만 累積된다. 이렇게 쌓여가는 덩어리가 凝固되면서 그걸질이 굳어질 수록 이를 맞부딪쳐 밀어내려는 그의 內面 葛藤은 그를 精神的으로 荒廢시킨다.

그 몇가지 事件을 더 列舉해보면, (ㄱ) 管理人으로 內定했던 Jopp을 Farfrae 出現으로 인해 一方的으로 깨뜨려서 怨恨을 품게 하고(p.85), (ㄴ) 解任당한 Farfrae가 그都市를 떠나지 않고 그와 同業競爭者가 되기로 했다는 所聞에 발끈해지고(p.145), (ㄷ) Susan이 죽은 후에 Elizabeth-Jane이 自身の 딸이 아님을 알고 난 다음, 그녀의 사투리 섞인 말과 그녀가 The Three Mariners에서 잠시 시중들어준 이야기에 트집을 잡아 鬱火를 터뜨리며(p.169), (ㄹ) Lucetta의 便紙를 받고 밤에 찾아갔을 때 下人을 시켜 面會를 拒絕하자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一方的인 速斷을 내리고(p.193), (ㄹ)의붓 딸 Elizabeth-Jane과 事業이 繁昌하는 Farfrae와의 結合을 바랬으면서도 막상 實現段階에 이르러서는 그結合可能性에 憎惡心을 품고(p.204), (ㄴ) Farfrae가 씨앗 뿌리는 機械를 購入하여 많은 사람들이 驚異와 好奇心에 끌려 이를 구경하는 場所에서 猜忌心을 制御하지 못해 욕을 퍼붓다가 Elizabeth-Jane의 視線에 늘려 움찔 물러선다거나(p.217), (ㄷ) Jopp을 다시 불러 什長으로 雇傭할 때 適格者가 못된다는 의붓 딸의 忠告를 默殺하고 固執을 부리며(p.237), (ㅇ) 穀物賣買에서 莫大한 金錢損失을 겪게 되자 助言 한 마디 없었다는 理由를 들어 Jopp을 하루 아침에 解任하는 境遇(p.245) 등이 있다.

性格에서 緣由되는 荒廢된 精神的 不安의 內面 葛藤을 겪으며 不知不識간에 犯하는 여러 가지 失手는 自壞<sup>28)</sup> (self-destructiveness)의 不運한 내리막 길로 그를 밀어부친다. 穀物購入과 販賣 時期 및 量에 賭博性을 介시키려는 일이나 날씨를 전혀 考慮치않고 強行한 消風, Lucetta의 옛날 便紙를 돌려보낼 때 自身과 그녀에게 遺憾을 품고 있는 Jopp을 심부름꾼으로 택한 일 등이 그 예로 指摘될 수 있다.

經濟的 破産과 더불어 道德的 良心으로 復歸하는 일이 깨어지면서 Henchard의 沒落은 加速的으로 運行된다. 아내를 팔았던 道德律의 罪人인 그가 財産을 잃으면서도 名聲만은 아직 지니고 있고 또 이를 더욱 所重히 여기는 段階에서 이 名譽感마저 산산조각을 내는 人物들이 登場한다. 첫째는 Lucetta요, 둘째는 the furmity-woman이다. Lucetta는 Henchard가 20餘年前의 過去事를 감추고 살아가는 만큼이나 자기의 지난 날이 드러남을 꺼리면서 莫大한 遺産을 相續한 未婚女로 行世하고 싶어하는데 過去에 事業關係로 Henchard가 旅行할 때 사귀었던 일을 聯關시켜 結婚을 強要하자 조금은 倨慢하고 野心的이며 性急한 男子로 생각하면서도 나쁜사람이 아니라고 判斷하나 現實의 利害를 따져 옛 약속을 어기고 Farfrae에게 接近해 가면서 "I won't be a slave to the past—I'll love where I choose!"(p. 230)라고 외친다. 또한 王室貴族을 맞는 자리에서 Mrs. Bath의 물음에 "He [Henchard] works for my husband." (p.344)라고 對答할 程度로 過去를 덮어 두려고 한다. 이러한 結果로 말미암아 Henchard를 더욱 精神的 不安狀態로 밀어넣게 되고 自身도 헤어나지 못할 狀況에 빠지

28) R. Carpenter, p.103.

는 것이다. 換言하면, Jopp과 Mixen Lane 사람들로부터 Skimmity-ride를 自招하게 되고 Henchard와 함께 道德律의 斷罪를 받았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sup>29)</sup> Weydon-Priors 장터에서 密酒를 팔면서 不道德하게 살던 the furmity-woman이 Casterbridge까지 흘러들어 墮落하고 醜한 모습으로 治安判事인 Henchard 앞에 나타남으로써 그의 社會的 存在를 간신히 支撐시켜주던 名譽에 決定打를 가하고 만다.

“.....And the man who sold his wife in that fashion is the man sitting there in the great big chair. ....It proves that he's no better than I, and has no right to sit there in judgment upon me.”  
(p.261)

道德的 立場에선 이미 罰받으러 온 自身과 自己에게 罰을 주려고 하는 判事는 같은 位置에 있다는 것이다. 이 事件으로 말미암아 Henchard는 物心兩面에서 再起不能의 狀況에 놓이게 되어 財政的 破綻과 社會的 名譽의 埋葬은 時時刻刻으로, 놀라울 程度로 速度가 빨라지고 깊이 깊이 꺼져들어 간다.

Small as the court incident had been in itself, it formed the edge or turn in the incline of Henchard's fortunes. *On that day—almost at that minute—he passed the ridge of prosperity and honour, and began to descend rapidly on the other side.* (p.281) [my italics]

外部의 視線과 認識의 問題는 内部의 그것들과 반드시 一致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Henchard에겐 名聲과 名譽에 대한 過去의 威嚴이 자리하고 있다. 前述한바 있듯이 債權者들에 대한 債務整理에 臨하는 그의 姿勢는 따스한 人間味를 바닥에 깔고 있는 一種의 權威意識인 셈이다. 그리고 Farfrae가 Henchard의 家具를 購入하고 나서 돌려주려할 때 그가 率直한 心情으로 “I—sometimes think I've wronged ye!” (p.293)라고 答辯한 것은 Casterbridge 사람들이 破産, 失戀, 道德上의 罪 등을 당하거나 느끼는 때에 흔히 찾아가는 江邊에 나가 마음의 平隱을 되찾은 다음이라 物質的 出世慾의 競爭者가 아닌 年下의 마음씨 고운 젊은이로 Farfrae를 대할만큼 너그러워졌음을 드러낸 경우다. 더욱이 正直하게 살면서 熱心히 일하는 것은 羞恥가 아니라며 Farfrae 밑에서 일꾼으로 살겠다는 覺悟는 의붓 딸과의 和解에서 비롯되어 Casterbridge를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삶에 대한 達觀的인 面貌를 보여줌과 同時에 이제는 더 曝露될 일거리가 없는 自身의 '人生이니 만치 道德的 良心에서 몇몇하다는 決心의 表明으로 볼 수 있다. Jersey 時節에 관한 Lucetta의 過去를 Farfrae에게 밝히려던 생각을 바꾸는 心境變化와 the Ring에서 그녀를 만나 侮辱을 주려던 마음이 변하는 일 역시 그의 平隱한 마음이 부드럽게 照明되는 例라 할 것이다.

그러나 自己의 商號가 쓰여있던 바로 그 看板에 Farfrae의 商號가 그려지고 次期 市長으로 Farfrae가 物望에 올라 選出될 可能性이 커지자 Henchard의 마음은 다시 한번 크게 逆回轉하면서 原點으로 돌아서고 Farfrae에 대한 憎惡心이 끓어오른다. 王室貴族(the Duke of Windsor)을 맞는 行事 때 自己도 公式接見團에 끼이겠다고 提議했다가 Farfrae 市長으로부터 拒絶을 당하고

“I hardly see that it would be proper, Mr. Henchard,” said he [Farfrae]. “The council are the council, and as ye are no longer one of the body, there would be an irregularity in the proceeding.”

29) John Paterson (1963), *The Mayor of Casterbridge as a Tragedy*, ed. A. J. Guerar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p.94.

If ye were included, why no others?" (p.340)

정작 行事 當日엔 個人資格으로 接見하기 위해 한길에 나섰다가 衆人環視裡에 Farfrae로부터 어깨를 잡혀 끌리고 떠밀림을 당하자 그날 밤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Farfrae를 만난다. 決定的 瞬間에 죽이라는 Farfrae의 옥박지름을 받아 그는 손을 털고 물러선다.

"Now," said Henchard between his grasps, "this is the end of what you began this morning. Your life is in my hands."

"Then take it, take it!" said Farfrae. "Ye've wished too long enough!"

Henchard looked down upon him in silence, and their eyes met.

"O Farfrae!—that's not true!" he said bitterly. "God is my witness that no man ever loved another as I did thee at one time……And now——though I came here to kill 'ee, I cannot hurt thee!……"(p.354)

自責感を 느껴 Farfrae를 죽이진 않았으나 이때가 時間上으로 禁酒盟誓의 21년이 滿了되었다고 酒店에서 술을 마시고 詩篇 第百九章을 노래하는 모습까지 드러낸 즈음이라서 그의 앞날이 不安스럽기만 하다. 그가 느끼고 있는 自責感이란 自身の 마지막 버팀대인 道德的良心에 立脚한 名譽感이기 때문에 옛날의 性格이 다소 醇化되었을 뿐 原色은 그대로 留保되고 있어서 언제 어느 境遇에 驚天動地의 불을 날리고 재를 뿌리게될지 알 수 없는 休火山 같은 Henchard인 것이다. 그러나 Farfrae와의 關係는 自責感이나 良心의 表現도 容納되지 않고 자꾸만 不信을 받게되어 自己와 함께 skimmity-ride의 對象이었던 Lucetta가 衝擊을 받아 流産하고 死境을 헤메일 때 그녀를 살리고자 百方으로 努力했지만 虛事였다. 여기서 Henchard는 自己 周邊에서 自身과 關聯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悲運에 生涯를 끝막거나 전혀 낯선 사람의 立場으로 돌아서 버리는 事實에 크게 後悔하며, 또 스스로 罪人視하면서 唯一하게 남아있는 Elizabeth-Jane을 친딸로 받아들여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보나 그것도 바다에서 行方不明되어 死亡者로 通告되었다던 Newson이 妻子를 찾아옴으로써 한 날 물거품이 된다. 한번쯤은 거짓말로 Newson을 따돌렸으나 the furmity-woman의 일을 體驗한 그에겐 견딜 수 없는 煩悶이 된다. 煩惱와 絶望의 진창을 헤메면서 漸次 그의 마음은 淨化되어 自殺하려던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強烈한 삶의 意慾을 가져 다시 한번 水平回轉을 하나 自己疏外感(self-alienation)만은 떼치지 못한다. 性格과 그 性格의 缺陷에서 저질러진 過去事는 이미 自身の 한 部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第一章에서 登場하던 옷차림과 똑같이 차려입고 다시 Weydon-Priors에 찾아오는 第四四章의 Henchard는 外觀上으론 같은 모습이나 한겨울의 皮膚속엔 일자리를 찾아 부른 가슴을 안고 들어서던 23年前의 그가 아니라 스스로를 追放한 罪人으로, 받을 수 있는 罰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다는 天刑의 罪人을 自處하는 變貌된 人間이 자리하고 있어서 肅然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가 Casterbridge를 떠나며 남기는 獨白을 보자.

"I—Cain—go alone as I deserve—an outcast and a vagabond. But my punishment is not greater than I can bear!"(p.404)

Elizabeth-Jane이 Farfrae와 結婚한다는 所聞에 祝賀 膳物로 방울새를 새장에 넣어 가져갔으나 그녀로부터 生父에 대한 거짓말 때문에 辛辣한 追窮과 酷毒한 表現의 말을 듣고 社會와 삶에 걸었던 唯一한 希望이 꺾여버림을 느끼면서 방울새를 제대로 건네주지도 못하고 돌아서 버린다. 그리고는 行方을 감추는데 며칠 후 그방울새가 새장속에서 죽은채 發見된다.

다분히 象徴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는 방울새는 Henchard의 마지막 모습에 견줄 수 있다. 이 방울새의 이미지에 대하여 F.B. Pini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d probably originates from 'Goethe's Helena', an essay by Thomas Carlyle to which Hardy alludes in *The Mayor of Casterbridge*. Nothing in it could have impressed him more than this passage:

"The Soul of Man still fights with the dark influences of Ignorance, Misery and Sin; still lacerates itself, *like a captive bird*, against the iron limits which Necessity has drawn round it."<sup>30)</sup>  
[my italics]

방울새의 주검을 보고 Elizabeth-Jane이 男便 Farfrae를 부추겨 荒野로 Henchard를 찾아가 그의 죽음을 確認하는데 그의 臨終을 Abel Whittle이 전해준다.

".....I seed 'em go down street on the night of your worshipful's wedding to the lady at your side, and I thought he looked low and faltering.....he turned and zeed me, and said 'You go back!'.....and in the blue o' the morning,.....he wambled, and could hardly drag along.....'What, Whittle', he said, 'and can ye really be such a poor fond fool as to care for such a wretch as I!'.....he didn't gain strength,.....he couldn't eat——no, no appetite at all—— and he got weaker; and today he died." (p.430)

한편, 그가 남긴 遺書는 全篇의 이야기가 壓縮되어 있다. 激情的이며 我執이 강한 反面, 物神崇拜의 迷信的인 면이 있고 野心的이며, 知性보다는 感情이 앞서고 앞날에 대한 細密한 分析과 豫見이 不足하고 判斷力을 찾기보다는 行動을 앞세워서 돌이켜잡지 못할 結果를 自招하곤 했던 性格의 缺陷을 지니고 살면서 世俗的 出世——致富와 社會的 名譽——그리고 經濟的 破産과 道德的 敗北, 특히 道德的 回歸과 人間다운 삶에로의 還元을 은뎀으로 겪으면서 渾身의 精力을 쏟아 正常軌道를 찾으려 몸부림친 44歲의 Michael Henchard가 엮은 悲劇의 一生이 모두 否定文으로 짜인 그의 遺書에서 鮮明히 들여다 보인다.

#### "MICHAEL HENCHARD'S WILL.

"That Elizabeth-Jane Farfrae be not told of my death, or made to grieve on account of me.

& that I be not bury'd in consecrated ground.

& that no sexton be asked to toll the bell.

& that nobody is wished to see my dead body.

& that no murners walk behind me at my funeral.

& that no flours be planted on my grave.

& that no man remember me.

"To this I put my name.

MICHAEL HENCHARD." (p.430)

#### IV

自繩自縛의 結果로 갈기갈기 찢기고 할퀴인 Henchard의 靈魂이 荒野의 오두막에서 더는 支撐치 못하는 肉身을 떠남에 있어 V. Woolf가 그를 Ajax, lord of Salamis의 죽음에 견주면서 "The true tragic emotion is ours."<sup>31)</sup>라고 매듭짓는 이 作品에서 펼쳐지는 事件들을

30) F.B. Pinion (1978), *Thomas Hardy: Art and Thought* (London: Macmillan), p.146.

31) V. Woolf, p.78.

조용히 凝視해온 Elizabeth-Jane을 통해서 作者 Hardy는 Henchard가 마땅히 받을 만큼의 價値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한 사람들 측에 끼인다고 말하면서 豫見할 수 없는 힘의 存在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함과 同時에 幸福이란 苦痛이 펼쳐는 一般的 드라마인 人生에서는 一時的으로 맛보는 插話的인 事件에 지나지 않는다고 整理를 하고 있다. 「性格은 運命」이라는 表現과 크게 矛盾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眞意는 Tess나 Jude의 境遇와는 달리 外部의 刺戟이나 事件에 휘말려 그힘에 支配받지 않고 이 外部의 힘에 對應하여 이기려는 內面的 버팀으로부터 나타나는 結果가 終局엔 破滅로 끝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冷酷하고 非情한 自然現象으로서의 適者生存에 勝者로 남지 못한다는 Darwinism의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Hardy의 Darwinism 影響에 대한 P. Meisel과 V. Hall, Jr.의 見解를 前述한 바 있거니와 여기에 Pinion도 同調하고 있다.

Possibly no other single book made a greater immediate impact on Hardy than *The Origin of Species*.<sup>32)</sup>

이와 같이 Darwinism을 바탕에 깔고 主人公의 性格的 缺陷에서 부터 自己疏外와 自己破壞를 指向하는 衝動的 性格이 끌어안는 苦惱에 찬 內面的 煩悶을 通해 道德律과 人間性으로의 復歸를 위한 努力이 無爲로 轉換되는 過程을 거쳐 漸次 沒落의 終止符를 찍게되는 人物設定과 劇으로서의 構成을 이루는 짜임새, 그리고 희랍 悲劇과 Shakespeare 悲劇의 霧圍氣를 느끼게 하는 *The Mayor of Casterbridge*는 Hardy의 다른 Wessex 小說들과 類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英國小說에서도 獨特한 位置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enchard를 Heathcliff에 比較하는 見解<sup>33)</sup>도 있으나 Lear王에 견주는 것<sup>34)</sup>이 더 妥當하다고 보겠다.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23) F. B. Pinion, p. 35.

33) A. Lass, p. 177.

34) J. Paterson, p. 92.